

시청률도 화제도 시들해진 3사 연기대상



시청률도 화제성도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에 빼앗긴 지상파는 예년에 비해 화려함이 줄어든 연말 시상식을 맞았다.

매년 어떤 배우가 차지할지 화제가 된 연기대상 역시 마찬가지였고, 좁아진 선택지 때문에 큰 이변도 없었다.

지난 30일 가장 먼저 연기대상 시상식을 연 MBC도 유력 후보로 점진 소지섭에게 대상 트로피를 안겼다.

소지섭이 올해 MBC TV에서 주연한 '내 뒤에 테리우스'는 시청률로만 보면 '숨바꼭질' 등 주말극이 더 높았지만 화제성은 단연 최고였다. 소지섭이 '오 마이 비너스' 이후 약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작품이었던데다, 멋진 첩보부터 코믹한 육아까지 여러 매력을 한눈에 발산한 덕분이다.

시청률도 올해 MBC TV에서 평일 방영된 미니시리즈 중 유일하게 10%(닐슨 코리아 기준)를 넘겼으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예년 '역적', '돈꽃', '군주', '죽어야 사는 남자',

KBS·SBS 공동수상, MBC 원톱 시상 힘겨운 농사 마무리

'투깝스' 등 선택지가 다양했던 것과는 대비됐다.

2018년 마지막 날부터 2019년 첫날까지 나란히 연기대상을 연 KBS와 SBS 시상 결과도 큰 논란은 없었다.

KBS 연기대상은 특히 예년과 비교됐다. 파업 중에도 시청률 45%를 돌파한 '황금빛 내 인생'부터 '쌈, 마이웨이', '김과장', '마녀의 법정', '고백부부' 등 그야말로 풍작을 이이룬 지난해에는 '상쟁겨줘야 할 배우'가 너무 많아 고민이었는데 올해는 기근이라 머리를 싸매야 했다.

KBS는 37%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같이 살래요'의 유동근과, 시청률 13%대를 기록함과 동시에 열연으로 화제를 모은 '우리가 만난 기적'의 김명민에게 대상을 나눴다. 지난해 '두 아버지' 김영철-천호진에 이은 2년 연속 공동수상

이다.

유동근도 언급했듯 '같이 살래요'에서 공이 큰 장미희가 받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짚혔지만 KBS에서 오랜 연기 경력을 자랑한 유동근, 김명민이 트로피를 가져간 데 대해 논란은 없었다.

SBS는 2018년 '리턴'과 '황후의 품격', 두 작품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리턴'은 불미스러운 일로 주연 배우가 고령장에서 박진희로 교체됐고 '황후의 품격'은 한창 방송 중이라 대상을 안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어른들의 리얼 멜로'라는 새 지평을 열며 시청률과 화제성에서 안전하게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스 먼저 할까요?'의 감우성-김선아를 선택했다. 이 역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대신 최우수연기상 등 본상에서는 '리

턴'과 '황후의 품격'에 넉넉하게 상을 안겨주며 공로를 인정했다.

2018년 지상파 드라마는 한마디로 '홍작'에 가까웠다.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비하지 못한 사이 tvN, OCN 등 케이블 채널과 JTBC 등 종합편성채널들이 크게 약진하면서 좋은 작가와 대본, 배우들을 조금씩 빼앗겼다.

작품 장르 역시 비지상파와 드라마는 엑소시즘부터 증강현실 게임, 시대극까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해 시청자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지상파는 하반기로 갈수록 홈드라마와 막장극에 국한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본, 대본, 배우의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하는 만큼 한동안 이런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콘텐츠는 부실한데다 여전히 심사기준은 불투명하고 상은 '나눠 먹기' 식으로 남발하는 바람에 연말 시상식은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황금돼지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탄소년단·아이즈원 등 아이돌 새해 영상 인사

아이돌 스타들이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팬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건넸다.

그룹 방탄소년단은 1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린 영상에서 돼지띠인 지민, 뷔를 필두로 저마다 새해 소망을 밝혔다.

지민은 “여러분과 함께한 지 2013년부터 2019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것 같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더 많으니까”라며 “2018년에 여러분과 함께하며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도 새해엔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주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뷔는 “제가 돼지띠인데 새해에는 여러분께 복이 많이 오면 좋겠다. 아미(팬클럽)와 추억을 쌓고 행복한 해를 보내고 싶다. 2019년 화이팅”이라고 말했다.

그룹 아이즈원은 “지난해는 아이즈원에 정말 의미 있는 한 해였다. 꿈에 그리던 데뷔도 하고, 위즈원(팬클럽) 여러분들도 만났다. 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소망하는 일 모두 잘 되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

다. 새해에도 아이즈원과 함께해요”라고 외쳤다.

그룹 프로미스나인도 “지난해 데뷔해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새해에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겠다”고 약속했다.

‘신홍 대세’ 몬스타엑스도 반가운 인사를 전했다.

몬스타엑스는 지난해 미국 최대 연말 라디오 쇼인 아이하트라디오 주최 ‘징글볼’(Jingle Ball) 투어에 K팝 가수 최초로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영국 BBC, 메트로 등 매체에도 소개돼 확장하는 해외 팬들을 실감케 했다.

멤버 아이엠은 이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모든 분이 황금 돼지처럼 풍족한 새해를 보내시면 좋겠다”며 “‘성장돌’이라는 별명처럼 지난해보다 더 발전하는 몬스타엑스가 돼 새해를 가득 채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995년생인 아이엠은 대표적인 돼지띠 아이돌이다.

몬스타엑스는 오는 5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팬 콘서트 ‘소풍’을 연다.

/연합뉴스

드라마·예능 풍년 tvN ... ‘김비서...’ 등 100개국 방영권 판매

올 한 해 지상파와 달리 드라마와 예능 부문에서 쓸쓸한 수확을 한 tvN이 방영권 판매 실적 등 성과를 지난 31일 공개했다.

방영 중인 수목극 ‘남자친구’가 미주, 유럽, 아시아 등 100개국이 넘는 국가에 선 판매된 소식에 이어 ‘백일의 낭군님’,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 중영 드라마도 100개국 이상 나라 지상파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에 방영권이 판매됐다.

아울러 올 초 방영한 ‘화유기’, ‘라이프’가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에 방영됐으며 하반기에는 ‘미스터 션샤인’과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도 방영돼 tvN 드라마를 전 세

계 시청자가 즐겼다.

방영권 외에 포맷 판매 성과도 이목을 끈다. ‘오 나의 귀신님’은 태국에서 리메이크돼 방영됐으며, 인도에서도 영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리미엄 제작사인 ‘어플라우즈’에 팔려 내년에 제작된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도 해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꾸준한 포맷 판매로 효자 역할을 하는 ‘꽃보다 할배’는 미국, 터키, 이탈리아에서 방영된 데 이어 올해는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태국까지 총 7개국에 추가로 포맷을 판매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대장금이 보고있다 스페셜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붉은 달 푸른 해(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죄와 벌 미리보기 <조들호가 돌아왔다>(재)		00 SBS 뉴스특보 문재인 대통령 신년 하례회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00 12 MBC 뉴스 25 붉은 달 푸른 해(재)	30 SBS 12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전 별의별 중계 50 특집다큐 기후변화 대응프로젝트 법상을 지켜라		3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도 도도 2 55 내 사랑 치유기(재)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스페이스 박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35 미니다Q	50 원손잡이 아내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리랴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력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55 나만의 독립 영웅 <안창남>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숨터	00 왜그래 풍상씨:커밍순	00 붉은 달 푸른 해	00 황후의 품격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2부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영혼의 팔레트 과테말라 3부 오래된 유산 치치카스테낭고> 07:00 융합한 소방차 레이 07:30 꼬마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미니특공대 X 08:45 람랄라 뿌우 09:00 엄마 까투리 09:30 원더볼스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녹두죽과 미나리 오징어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청오뉴스 12:10 EBS 초대석 13:00 지식채널e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우리 가족 거리 줄이기-부모성적표 14:30 코코몽3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15:15 출동! 파자마 삼총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융합한 소방차 레이 16:30 람랄라 뿌우(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19:00 피파루 안전특공대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신년특별기획 놀이의 힘 20:40 세계테마기행 <푸른 바다의 전설, 아드리아해 3부 숨은 보석,몬테네그로> 21:30 한국기행 <오래된, 좋은 3부 매주는 예쁘다> 21:50 EBS 다큐프라임 <한라산 늑대개> 22:45 극한직업 23:55 EBS 초대석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2일(음 11월 27일 己亥)

 子	36년생 과거에 했던 그대로 함이 최상이다. 48년생 방해꾼이 끼여들 수도 있는 정황이다. 60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호기가 주어질 수 있다. 72년생 쉽게 장담한다면 머지않아 곤란에 처해진다. 84년생 한 가지 일에 만 집착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82, 32	 午	42년생 작은 불똥이 튀어서 큰 불이 될 수 있는 조짐이다. 54년생 과잉 언행은 오는 복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66년생 쉽게 장담하지 말라. 78년생 절근성이 좋아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니라. 90년생 흐지부지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27, 45
 丑	37년생 시기와 경중의 안배에 충실 하는 것이 지혜롭다. 49년생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음이 무난하다. 61년생 좀 더 지켜볼 일이다. 73년생 변수가 보이지만 지나쳐도 된다. 85년생 방치한다면 원상으로 복귀하게 된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2, 15	 未	43년생 반드시 실속 있는 관계로 이끌어야 할 것이니라. 55년생 자신감 못지않게 침착성도 절실히 요청 된다. 67년생 성과를 보이리라. 79년생 혼란스러울 때 유익한 조언자가 나타나리라. 91년생 상대에게 먼저 배려한다면 중국적으로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8, 75
 寅	38년생 격리되거나 이동할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50년생 주체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될 수도 있느니라. 62년생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아예 만들지 말라. 74년생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할 때이다. 86년생 막연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70, 03	 申	44년생 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라. 56년생 현재의 처지와 분수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 68년생 갈구해 왔던 바가 실현 될 것이다. 80년생 맹목적인 판단을 한다면 문제점 이 속출할 수도 있다. 92년생 불청객이 추진하던 일에 차질을 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8, 41
 卯	39년생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훨씬 알차다. 51년생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면 결실이 있을 것이다. 63년생 부담스럽다면 그 어느 때라도 반복해야 한다. 75년생 한시를 놓을 수 있는 판국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 87년생 쇠는 뜨거울 때 두드러라. 행운의 숫자 : 94, 26	 酉	45년생 장고한 후에 결정할 일이다. 57년생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실수를 방지하리라. 69년생 겉으로는 그럴싸해도 속으로는 별 것이 없다. 81년생 기본에 충실했을 때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93년생 조리에 맞지 않다면 폐기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97, 91
 辰	40년생 주세에 영향하려 하지 말고 좇대를 가져라. 52년생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합리성을 높인다. 64년생 생 상대의 숨은 의중은 따로 있느니라. 76년생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8년생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83, 85	 戌	34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바를 지나치게 깨닫게 된다. 46년생 나가는 것 보다 들어오는 것이 훨씬 많으리라. 58년생 작은 일을 잘 해내야 큰일도 치를 수 있는 법이다. 70년생 애를 먹겠다. 82년생 예비 작업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무리가 따른다. 행운의 숫자 : 21, 93
 巳	41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 법이다. 53년생 들추어내는 것보다는 가만히 모여 두는 편이 더 낫다. 65년생 속속들이 접경하라. 77년생 구체적이어야 의미가 있다. 89년생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다. 행운의 숫자 : 62, 92	 亥	35년생 많고 적고 간에 지금은 다 모아야 할 때다. 47년생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커다란 전진이 보인다. 59년생 변화를 추구한다면 발전되는 양상을 띤다. 71년생 파격적인 제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83년생 가까스로 벗어 나게 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43, 8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